

한국예술 종합학교 신문

2016.10.10.
제269호

1면 축제 풍경
2면 신문사 사과문
3면 제2회 K-Arts 플랫폼 페스티벌
4면 “다함께 부라보” 2016년도 예술제

5면 2학기 전학대회
6면 미술인 보수지급제도 도입 예정
7면 삼성반도체 첫 산재 인정, 그러나...
8면 연극과 웃음(3)

뜨거웠던 축제의 밤이 지났다.
체육대회의 함성들, 무대 앞에서
'부라보'를 외치며 환호하던 지역
주민과 길 옆에 늘어선 주막들 사이로
오가던 우리들의 이야기까지.

이제는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들이다. 다시 치열한 일상 속으로
돌아가 마저 한 학기를 버텨내야 하는
당신에게 이번 호의 신문이 소소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발행인 김봉렬
주간교수 우광혁
편집인 서안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회관 2층
1996년 11월 28일
창간 newskarts@gmail.com
전자메일 news.karts.ac.kr
누리집



서초동캠퍼스 증축 어디까지 왔나

불편함은 있지만, 차질없이 진행 중

우리학교 서초동캠퍼스는 지난 1월에 시작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4개 층을 수평으로 늘려 짓고 실기실을 넓히는 등 시설환경 개선을 꾀한다. 공사는 201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사의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서초동캠퍼스 구성원들은 여러 불편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

시설관리과 황환승 주무관의 말에 따르면, 공사는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현재 A 구역 냉난방·배관 장비 교체작업중인데, 입시기간에는 모든 낮 작업을 중단하고 밤 작업[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으로 전환하게 된다. 시설관리과는 공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볼트나 시멘트 같은 자재 또한 철저히 검사하며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난방을 해야 하는 11월까지 냉난방·배관 장비 교체 작업을 마쳐

려 노력 중이다. A 구역의 냉난방·배관 장비 교체 작업 등 기계설 작업이 끝나면, B 구역 냉난방·배관 장비 교체 작업과 학생편의시설의 리모델링, 옥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작업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후 서초동캠퍼스의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본관을 A 구역과 B 구역으로 나누어 차례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현재 A 구역에서는 공사가, B 구역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A 구역에 위치했던 시설은 대체되거나 폐쇄되었다. 현재 구내 식당, 기존 매점 및 카페, 기존 정문 및 지하 출입구, 좌측 화장실이 폐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초동캠퍼스는 본관 앞쪽에 컨테이너를 쌓아 학생회실, 매점, 조교실, 행정실 등이 자리한 임시 사무실을 마련했다. 또한, 2층 마당에는 임시 건물을 설치해 부족한 강의실

을 보충했다.

서초동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 A 씨는 공사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외관상으로도 느낌이 다르고 복도가 좁으며 화장실이 너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남자화장실의 경우, 3층까지 올라가야 하며 실기하는 친구들은 홀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입시 건물 강의실에 있어야 할 게 다 있어 수업시간에는 불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황 주무관은 학생들의 불편함을 알

고, 미안함을 느낀다며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소리가 많이 나는 데다가 학습장도 모자라고 지하 2층의 경우, 실내 공기순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노후화 및 학습장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공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주무관은 “현재 사용 중인 방화 시스템을 보완하고 연습실 방음 공사도 할 것”이라며 “내년 완공 이후에는 학습장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거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A 씨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전체 문자 등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한별 기자

wjdgksqf99@gmail.com



△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사무실

작품 만들다 ‘커피 한 잔’도 안 되나요?

김시역 주무관 “성적 등 부분에서 교수 직무와 관련성 있다고 보여” 국민권익위원회 발행 사례집, 논란 되는 사례들 정리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내에서 청탁 행위에 대한 주의가 각별해지고 있다.

지난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김영란법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김영란법의 1호 신고가 교수에게 커피를 사 준 대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각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상황이다.

우리 학교가 도제식에 가까운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사이에 허물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내 구성원들은 이번 김영란법 시행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작업 중 학생이 커피나 음료수를 사는 건에 대해서도 총무과의 김시역 주무관은 “보통 통상적으로 교수님과 학생 사이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제는 교수님들 스스로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학생들한테 받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총무과는 공식 학내 사이트인 누리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를 게시했다. 게시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한 김영란법의 해설집과 학교용 매뉴얼, 교직원용 매뉴얼, 사례집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사례집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질문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아래에서는 그 중 현재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질문 몇 가지를 살펴본다.

Q.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에 단순히 물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수위나 운전자, 계약직, 임시직 등도 포함이 되는가
사례집에서 밝혀진 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대학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있어서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상의 적용대상인가
사례집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시간강사가 현행 고등교육법 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Q. 대학원생 A가 자신의 지도교수 B의 배우자 C의 생일날에 C에게 전달 하려며 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예게 준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

재를 받나

선물의 명목이 B의 배우자에 대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B가 직접 선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B가 배우자에게 선물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사후적 정황에 불과하다. 따라서 B는 직무와 관련하여 제자인 대학원생로부터 만원 상당의 선물을 청탁받은 것이 된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각 사례마다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도 아직은 다소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시역 주무관은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은 교수님들한테 해드렸지만, 사례가 없고 판례가 없다 보니 굉장히 서로들 조심하고 있다”면서 “총무과에서는 새로 교육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침에 내려오면 공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제 1조는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공공기관의 부패 척결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법안인 만큼,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수, 교직원을 포함한 교내 구성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동완 기자

official0504@gmail.com

학내단신

서초동 교사 정전안내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비상발전기 운영에 따른 정전 및 순간정전이 다음과 같이 발생할 예정이다. △10월 7일(금) / 6:00~8:00(2시간) △10월 7일(금)~10월 21일(금) / 12:00~12:05, 24:00~00:05(각 5분). 무용원 행정실은 다음과 같은 협조사항을 게시했다. △ 해당 시간 승강기 사용 금지 △ 컴퓨터 자료 저장.

미술원 적재물 정리

미술원 행정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술원 적재물 정리를 시행한다. 미술원 행정실은 다년간 방치된 적재물에 의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안전점검 기관에 매년 지적이 되고 있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적재물 자율 정리 기간은 9월 21일(수)부터 10월 20일(목)까지며, 이후 강제 철거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누리(nurikarts.ac.kr) 알림마당 미술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 조형연구소 전시공모

갤러리175에서 2017년 3월~2018년 2월 사이 약 2~3주간 전시될 작품을 공모한다. Gallery175 정기공모와 B104 정기공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재학생, 졸업생 및 수료생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 접수할 수 있고, gallery175 오픈공모는 외부 작가 또는 기획자로 구성된 단체가 접수할 수 있다. G175 정기공모 및 오픈공모 부분은 최소 200만 원을, B104 부분은 20만 원을 지원한다. 기타사항은 02-746-9670 또는 gallery175@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융합예술센터 강연 <위치감각>

융합예술센터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석관동캠퍼스 영상원 L144호에서 강연 프로그램 <위치감각>을 개최한다. <위치감각>은 다양한 장소들을 마주하고, 만들거나 분석하는 연구자 및 기획자를 초청해 장소성을 둘러싼 리서치 기반의 예술, 비평적 미디어 실천, 창작 활동으로서의 연구/기획 등을 조망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https://www.facebook.com/karts.ac/)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차 정기소독 안내

시설관리과에서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습 환경 조성 도모를 위해 정기소독을 추진한다. 일시는 다음과 같다. △석관동교사 / 10월 21일(금)~10월 22일(토) / 9:00 ~ 17:00 △서초동교사 / 10월 24일(월) / 21:00 ~ 23:00 △대하로캠퍼스 / 10월 21일(금) / 14:00 ~ 17:00.

다시, 한 마디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출범

지난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의회에서는 꾸준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법안들이 상정되어왔다. 많은 정당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모두 대선 당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와는 달리 오늘날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기만 하다. 특히 최근에는 제20대 국회를 맞아 박근혜 정부가 일명 ‘노동개혁 4대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이번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신문》에서는 우리 학교의 비정규직 노조 출범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현 상황을 되짚어본다.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는지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 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20일 설립총회를 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비정규직 노조”]이 마침내 지난 26일 성북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았다. 설립신고 필증은 노동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인가서로서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을 입증하는 문서다. 이로써 비정규직 노조는 대학회계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노조 한예중지부, 공무원이 가입된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노동조합 한국예술종합학교 지부, 그리고 조리원 등이 중심인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이어 4번째 학내 노조가 된다.

그렇다면 이 4번째 학내 노조가 포함하는 집단은 기존 3개 집단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일까. 지난 30일, 비정규직 노조에서 발행한 《한국예술종합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식지》 준비 1호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 노조의 구성원은 교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여기에는 초대 노조 위원장으로 지난 여름부터 준비위원장을 맡아온 허덕희(미술원 근무) 씨를 비롯해서, 부위원장 김동혁(영상원 근무) 씨, 부위원장 차모식(공연전시센터 근무) 씨, 사무국장 박문용(예술정보관 근무) 씨, 회계감사 이근태(미술원 근무) 씨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의 초대 임원단이 포함된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비정규직 노조의 임원단 또한 모두 경력 10년을 넘긴 무기계약직들이라는 점이다. 국무총리 훈령 제486호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얼핏 보기에는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 노조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째서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

노조 설립 계기 된 무기계약직 차별, 최근 판례가 증명해

우선 비정규직 노조 측에서는 공시자료를 지적한다.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직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과 대학회계직은 정규직(127명)으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은 계약직(128명)으로 통합 분류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조는 수당과 임금 등에서 정규직과 명백한 차별대우가 존재해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정규직 취급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훈령은 있지만 사실상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우리 학교

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6월 10일 강모씨 등 MBC 무기계약직 노동자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가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준다. 당시 재판부는 MBC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해 “채용절차, 부서장 보직 부여 및 직급승진 가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업무 내용과 범위, 양, 난도 등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학교의 무기계약직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무기계약직의 기존 상황에 대해 박문용 사무국장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간 대학노조 한예중 지부에 들어가서 일원으로 있었고, 같이 참여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도 원래는 대학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는 정작 “계약직도 들어갈 수 있다는 홍보 자체가 너무 미비했으며, 2~3년 전까지만 해도 계약직들은 가입 자체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박 사무국장은 “그러다 보니 조합원 중 계약직 조합원이 소수였고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실정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허 위원장은 “항상 [학교와의]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같은 걸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들의 의견이 소수이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 총 7개 요구 사항 제시 “제일 큰 건 고용불안 해소”

《한국예술종합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식지》 준비 1호에는 현재 비정규직 노조의 핵심적인 요구가 나와 있다. 총 7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 사항은 △임금체계에 대한 차별 시정 △복지 관련 차별 시정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신규 채용 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채용 △비정규직원들(일용직 포함)에 대한 개인 정보 보안 강화 요청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 현실적 실적 반영과 대가 지급 요구 △출·퇴근 지정에 대한 차별 시정 △계약사항에 대한 개정 요구라는 큰 제목으로 나뉜다.

허 위원장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불안의 해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다”면서 “상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2년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허 위원장에 따르면 “고용부에

인에서도 1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 1년 이상 지속될 업무라고 생각되면 애초에 채용을 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라고 적혀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그는 “학교 측에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므로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라고 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2년 이상 지속되어야 할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에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허 위원장은 “여타 국립대의 경우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이 약 7:3에서 8:2인데 우리 학교는 5:5다”라며, 전체 고용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해당 업무에서 경험을 쌓은 인원이 자주 교체되는 건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노조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처우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특히 추가 수당에 대한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었다. 허 위원장은 “무기계약직 분들 중에서 10년 가까이 되신 분은 수당 면에서 정규직에게 뒤처지게 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같은 정규직이지만, 정작 무기계약직은 정근 수당이나 가족 수당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모든 무기계약직이 공통으로 받는 수당은 복지 포인트(연 40만 원 상당)나, 연가 보상비, 명절 휴가비(연 80만 원) 정도 뿐이다.

허 위원장은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부서도 있긴 하지만, 모든 부서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 측에서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업무담당자를 정하고, 그 부서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학교 측의 태도에 대해 “학교 측에서 정한 것과는 별개로 초과근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업무가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려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 박 사무국장은 “학교측에서는 월급에 수당이 포함 되어있다고 말하겠지만, 매년 월급이 인상되는 폭은 물가상승률에 의한 변동 폭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만약 정말 그 월급에 모든 추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실 최저임금 아래를 받고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월급이 추가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천장의 아래에서

비정규직 노조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차모식 부위원장

은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이전까지 근무했던 2년간의 기록이 인정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간을 따지면 3호봉으로 시작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급여표를 기준으로 하여 받던 월급에서 차상위에 위치하는 호봉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무기계약직은 호봉 제한이 있는데, 이 때문에 17년까지 근무를 하면 더 이 올라갈 수 있는 직급도, 호봉도 없게 된다.

이에 허 위원장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경력적으로 뿔다 보니 호봉 테이블의 맨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지도 않는다”며 “급여에 맞춰 가/나/다급으로 나뉘는데 가급으로 처음 온 사람은 9년만 지나면 호봉이나 직급이 동결된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동일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에게는 그들이 더는 올라갈 수 없게 하는 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허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무기계약직에 TO가 정해져 있어서 더는 뿔 수 없다고 하는데, 공식되는 자료들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학교 측에서 충분히 TO를 늘릴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개선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니라 총장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겠냐는 게 그의 요지다. 학교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추고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한계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아래’에서 들끓고 있는 목소리들

이처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현실에서는 정작 아무런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지난 2012년 2월 7일 국회에서 열렸던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의다. 이날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비정규직 대책안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공정임금과 고용보장, 두 가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안을 만들었다”며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은 2015년까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

원을 모두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안을 비대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5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는 비정규직이 남아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려 약 6,156,000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 19,233,000명의 약 32%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2015년 하반기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1,000명으로 역시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32%였다.

심지어 2015년 하반기의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5,809,000명이었던 지난 2012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약 4년간 약 46만 명이 가까운 인원이 늘어난 상황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2015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약 65.5%로서,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그만큼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p 상승한 수치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2011년부터의 통계를 봐도 결과는 비슷하다. 두 집단의 임금 격차는 2012년에 잠시 57%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살펴봐도 2012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국무총리 훈령에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고용불안이 덜하다는 점만 빼면 실제 처우에서는 비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다. 기간제 근로자일 때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운 좋게 계약이 되어도 주요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천장에 가로막혀 정규직보다 낮은 호봉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허 위원장은 지난 비정규직 노조 소식지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낙관적이고 즐겁게, 그리고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는 희망의 진지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들을 한 명의 노동자가 아닌 ‘비정규직’으로 규정하려 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들은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동완 기자

official0504@gmail.com

신임교원인터뷰 (5)

: 이강민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이런 당위를 말하며 감동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말로 그러한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것은 교육 시스템에서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상을 똑바로 바라보면 학교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언제나 학생이 아니었다. 학생은 4년이 지나면 학교를 떠나지만 교원들은 은퇴 전까지 10년, 20년 이상 학교에 남는다. 어쩌면 학교를 이끌어 가는 데에 학생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부여되는 쪽은 교원이기도 하다. 지난 8월, 우리학교는 4명의 교원을 새롭게 임용했다. 이들의 생각과 계획, 의지를 통해 학교의 환경은 상당히 변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신문은 ‘신임교원인터뷰’를 기획하면서 그들과 직접 만나, 특별히 학내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중점적으로 들어보기로 했다. 그들이 그러한 청사진에 주목해보면, 우리학교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신임교원인터뷰는 건축과 이강민 교수를 찾았다. 건축사를 통해 한국 건축의 미래를 꿈꾸는 이 교수는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근래에는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나?

지금은 모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원래는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정책 연구는 자신만의 의견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그런지 회의가 엄청나게 많았다. (웃음)

학교에 왔더니 상대적으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생긴 것 같다. 지금은 학교 행정에 적응하는 시간과 학과 학생들 이름 외우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 학교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이 많아서 바쁘기도 하지만 [학과 상황을] 잘 모르기에 더욱 바쁜 것 같다. 간단한 일이라도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일반 대학에서 건축을 수학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학교의 건축과가 특별히 구별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학생들이 동질성이 있는 것 같다. 내가 학교에서 건축을 배울 때는 ‘건축학과’라는 큰 프레임 안에서 학생들의 관심사가 다 제각각이었다. 그래서 학문의 경계가 느슨했다. 그에 비해 한예중 건축과의 학생들은 모두 건축가의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학교 건축과 학생들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은가?

고민을 상담한다거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공감대가 있는 것은 확실히 유리한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좁게 형성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세상과의 소통이 노력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일반 대학처럼 자연스레 폭이 넓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건축은 설계 분야, 시공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

각각의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예전에는 건축학과라는 틀 안에서 동기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지만, [설계에 초점이 맞춰진 한예중 건축과 학생들 같은 경우] 시공이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동문이나 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맞춰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듯 하다.

건축이 예술학교에 있다는 것이 조금은 신기하기도 하다. 건축이 예술로서 갖는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양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Art&Architecture [예술과 건축]의 전통이 있어왔다. 건축이 미술과 떨어지지 않고 종합예술로서 이어져 온 것이다. 반면 건축이 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예술로서의 지위가 많이 손상된 것 같다. 국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집을 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상하게도 건축과 토목이 결합되었고 기술적인 과정들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서 건축이 공학과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왔다. 한예중 건축과의 특별한 점은 예술로서의 건축을 강조하는 유럽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아주 극소수이다.

타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학습 태도나 학생들의 생각에서 다른 학교와 특별히 구분되는 점이 있다고 보는가?

우리학교 학생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갖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유를 추구하고, 집단주의나 관료주의와 같은 위계적 체제에 대해 거부하는 성향을 말한다. 물론 그러한 특성들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키워온 독립적인 자세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타대학 같은 경우 선, 후배 사이의 위계가 엄격하여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문화는 없는 것 같아 아주 발전된 교육 체제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독립적인 성격이 이후 건축 설계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궁금하다.

건축가가 자유 전문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 건축가는 일단 사회적인 역할이 있고, 큰 자본과 엮여 있어 사회적 제약이 많은 직업에 속한다. 그렇다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복종하게 되면 자신의 일을 지켜나갈 수 없다.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설득해서 의견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기술보다도 먼저 자신의 주관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독립적인 성격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건축과가 다른 과에 비해 폐쇄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폐쇄적인 건 학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가는 전문직종이다. 일반적인 예술가들과는 작업 환경 자체가 다르다. 전문직들은 자신의 집단 내에서 [그들만이 아는] 전문 용어로 소통한다. 이런 요소들은 건축계 내에서도 자각비판하는 요소가 된다. 민간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건축 비평만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힘들다는 것이다. (웃음) 이런 장애들은 젊은 건축가들과 학자들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과 커리큘럼을 짜는 문제도 있다고 본다. 건축의 경우 학과의 커리큘럼을 외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한예중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인증심사를 받는데 하나는 건축학인증심사와 나머지 하나는 RIBA(영국왕립건축교육협회)로부터의 심사이다. 전문직 양성 과정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 커리큘럼을 짜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박굴

것들은 내부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 교육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건축가들은 자신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적 성취를 이루는 사람보다는 사회가 필요한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보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한 체계적 지식과 윤리의식, 그리고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종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받아내기 위해 ‘건축사 자격 제도’를 만들게 된다.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한데, 설계 도면에 건축가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건설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길이 전문화되면서 예술가들과는 가는 길이 사뭇 달라졌다. 위상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예술가보다는 구속이 많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건축 교육이 다른 예술 교육과 다른 점이 생겨난다. 일단은 전문직으로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창작의 시간보다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다. 전문직 양성 교육과 예술 교육이 분리할 수 없이 붙어있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 같다.

지금의 한국 건축가들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국가한옥센터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자신 나라의 전통 건축을 그대로 다시 건축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복고주의(revivalism)의 사례는 있었지만 21세기 한국에서 한옥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실제로 [한옥을] 짓는 건축가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 건축가들이 그런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오래전부터 한국의 건

축가들은 한국성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들은 철저하게 전통 건축의 추상적 가치와 정신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었고 새로운 재료들로 건축을 이어나갔다. 문제는 한옥 복고주의는 나무로 짓고 기와를 올리는 등 전통적인 과정들을 그대로 재현한다. 옛날에는 작가로서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전통건축의 특징 때문에 무시받아왔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질감과 재료, 구체적인 공간의 재현을 통해서 그 통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고 요새 젊은 건축가들에게도 화두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

학교에 오래 남아계실 거라 믿는다. 앞으로의 다짐이 듣고싶다.

최대한 오래 있으면 25년 정도 있게 되는 것 같다(웃음). 일단 학교의 일원으로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건축가의 일이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건축은 계속해서 분화되어 나가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심지어 건축가는 설계도 그리는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물론 그러한 페이퍼 자체가 예술이 되고, 건축물이 전시되면서 넓어진 측면도 있다. 한 쪽은 좁아지고, 다른 한 쪽은 넓어지면서 건축은 계속해서 움직여간다. 다만 그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글에서 자동차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처럼 앞으로는 누가, 어떻게 집을 지을지 모르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교육이 이어지면 안될 것 같아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다.

*인터뷰 전문은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굴 기자

kyulp123@gmail.com

영화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

<할머니의 먼 집> 이소현 감독 인터뷰

문화부 기획특집 '예술이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예술을 통해 각자의 삶과 사회의 이야기를 반추해나가는 우리 시대의 예술가들을 만나본다. 오랜 시간 한 분야에 집중해 온 이들부터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이들과, 예술을 통해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자.

최근 독립영화 진영에서 "영상원 영화"의 개봉이 활발하다. 극영화부터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영화들이 극장에서 소개되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사적 다큐멘터리 <할머니의 먼 집>(배급 KT&G 상상마당)이 개봉했다. 영상원 영화와 전문사에서 음향을 전공하던 감독이 카메라로 할머니를 담게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감독은 영화로 무엇을 기억하려 할까? <할머니의 먼 집>이 상영되고 있는 홍대 KT&G 상상마당 6층 카페에서 이소현 감독을 만나보았다.

이력이 독특하다. 다큐멘터리 <할머니의 먼 집>은 어떻게 작업하게 됐나?

영상음향을 전공하던 중 남보다 귀가 약한 걸 알게 됐다. 휴학을 하고 치료를 받은 뒤 중등 여행을 하던 중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하면서 NGO에 관심을 갖게 됐다. 졸업하고 베트남의 "지구촌 난민운동"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국내 취업을 준비하던 중 할머니의 자살 시도 소식을 들었다. 항상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잘 몰랐다. 혹시 또 시도할 수도 있으니까 못 하시도록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내려가게 됐다.

어른이 되어서는 할머니랑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서 개인소장을 곁한 단편영화 촬영을 하다가, 취업이 되어 편집을 안 하고 미웠다. 그러다 외숙(할머니의 첫째 아들)께서 돌아가셨다. 경황이 없어서 촬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사촌오빠가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을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장례식을 찍었다. 어느 순간 이야기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 구체적으로 작업하게 됐다.

가족들이 카메라를 거의 의식하지 않아 놀랐다. 촬영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

집에서 내 존재가 미미하다. (웃음) 이게 영화가 될 것 같다고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가족이라 신경을 안 쓰나 싶었는데 촬영감독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영화를 할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못 보시게 될까봐 불안했다. 촬영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불안을 늘 갖고 있었다. 어머니가 할머니께 영양제를 놓지 말라고 전화로 말씀하셨을 때가 특히 힘들었다. 엄마랑 싸워본 적이 없었는데 2주간 평평 울었다.

영화 외적으로 엄마를 다시 볼 자신이 없다는 생각도 들다가, 한편으로는 이걸 촬영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은 선

택인지 고민이 됐다. 인생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우선은 찍고 편집하면서 고민해보라는 조언을 주변 감독들에게 들었다.

서울독립영화제 프리미어 상영 때 할머니와 GV에 참여했다. 할머니께선 어떠셨나?

서울의 큰 극장에서 영화를 틀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 안 믿으시더라. 왜 서울 사람들이 그런 걸 보러 오냐고. 그래서 온가족이 할머니를 설득해서 모시고 극장으로 갔다. 사람들이 차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오메, 손주 말이 참말이네"하면서 좋아하시더라. 관람하시면서는 특히 외숙이 나오는 부분을 좋아하셨다. GV를 할 때는 어떤 질문을 하던지 "이런 보잘것 없는 저를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만 대답하셨다. 화순에 돌아가시는 서울에 있는 극장에서 당신이 나왔다고 동네분들에게 자랑을 하시더라.

삶과 죽음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독거노인이나 존엄사 논쟁, 노부모 부양 등의 문제를 떠올리게 된다.

나는 영화가 세상을 곧바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광부들이 지하에 내려갈 때 카나리아를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카나리아가 죽는 걸 보고 가스가 찬 걸 알아채고는 위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나. 카나리아처럼 사태를 직면하게 하는 것이 영화의 역할이라고 본다. 실제로 문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책과 여론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할머니께서 다쳐도 병원에 혼자서 갈 수 없고, 귀가 잘 안 들려서 전화를 할 수도 없어 소통이 차단되는 상황에 처해지더라. 나라에서 애쓰고 있지만 세세한 부분의 디테일이 떨어진다.

할머니께서 저수지에서 산책을 하시며 "징그럽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부

분에서 끝을 맺는 엔딩이 인상깊었다.

원래 엔딩이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몇몇 있었다. 엔딩에 나오는 저수지는 할머니께서 항상 외숙과 산책하시던 곳이었다. 거길 가서 "구경 잘 했다"고 하시는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의 삶을 생각하는 모습이 소풍 온 것처럼 구경 잘 했다고 말씀하는 그런 삶이었을 좋겠다고 생각했다. 삶에 대한 소회가 이 지점에서 끝나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가 엔딩이겠구나 싶어서 그 때부터는 촬영을 하지 않았다.

근래 영상원 출신 감독들의 독립영화가 활발히 개봉되고 있다. 배급사 KT&G 상상마당과는 어떻게 인연이 닿았나?

상상마당 프로그래머가 서울독립영화제 상영 때 영화를 보았고, 마침 PD와 아는 사이여서 미팅 제의가 들어왔다. 또 후배였던 음악감독의 남편이 <족구왕> 우문기 감독인데, <족구왕>이 상상마당을 통해 배급을 했다고 강력 추천하더라. 기회가 되면 꼭 상상마당을 통해 개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가장 먼저 제의를 해주어서 수락했다.

사적 다큐멘터리는 최근 "영상원 영화"의 큰 흐름이기도 하다. 연출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나.

엄마가 악역으로 보일까 봐 고민이 됐다. 엄마께 초기 편집본을 보여드리니 할머니께서 자살시도를 하신 것과 엄마께서 우리 엄마(할머니)가 죽기를 바라다고 말씀하시는 두 개를 빼달라고 하셨다. 엄마가 할머니께서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이유와, 할머니께서 죽음을 바라는 이유, 내가 할머니와 오래 살고 싶은 이유는 결국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빼겠다고 했더니 의도에 동의해 주셨다. 편집하면서 엄마가 "이



△ 영화 <할머니의 먼 집> 스틸컷. ©KT&G 상상마당



△ 이소현 감독은 기자의 카메라를 보고 "똑같은 카메라로 할머니를 담기 시작했다"며 웃었다. ©안신호

부분에 내 마음이 더 담겨있다"고 한 것들을 참고했더니 더 좋아졌다.

또 누군가의 자살시도를 공개한다는 게 제일 고민이 됐다. 할머니는 맘대로 찍으라고 하셨지만 그건 나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 같고, 내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감추고 싶은 비밀인데, 이걸 내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상처를 극복하고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다. 신기한 건 GV를 다닐 때마다 할머니께서 자살시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손녀분들이 계속 오시는 거다. 자료로만 보다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싶어서 많이 놀랐다.

감독이자 주인공인 자신의 역할이 혼란스럽지는 않았나?

내가 게을러서 좋은 장면을 많이 놓쳤다. 그래서 일주일간 내려와 있으면 못해도 이들은 카메라를 놓지 않으려고 했다. 스태프들의 도움도 있었다. 영화에서 내 얼굴이 나오는 게 싫더라. 나와 편집감독이 편집을 번갈아서 했는데, 내 얼굴이 나오는 장면을 다 빼면 편집감독이 다시 넣어서 빼고 넣고를 반복했다. "이걸 왜 넣냐, 싫다"고 하니 편집감독이 "감독님은 현재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걸 부끄러워한다.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이 장면을 왜 안 넣냐"고 하셨다. 그래서 수긍하고 넣은 게 할머니와 막걸리를 마시는 장면이다.

한예중 재학 중 특별히 배웠던 것이나 기억나는 경험이 있다면?

팔레스타인에서 찍은 다큐멘터리를 믹싱해서 수업에 가지고 갔더니 선생님들께서 너는 사운드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녹음실에 앉아서 일할 수 있겠냐고. (웃음) 저희 전공은 숫자가 적어서 오붓하고 끈끈하다. 선생님들께서 전공을 통해 다른 걸 하는 데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아하셨고 관심사를 지지해주셨다.

영화를 맨 먼저 보여드렸던 분도 이규석 선생님이셨다. 귀에 이상이 생겨서 일적으로 사운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선생님께서 "네가 앞으로 사운드를 못하게 될 걸 알고 있지만, 학교 공부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라.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느냐가 졸업 후 네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 태도를 공부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난 게 가장 큰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의 작업 계획이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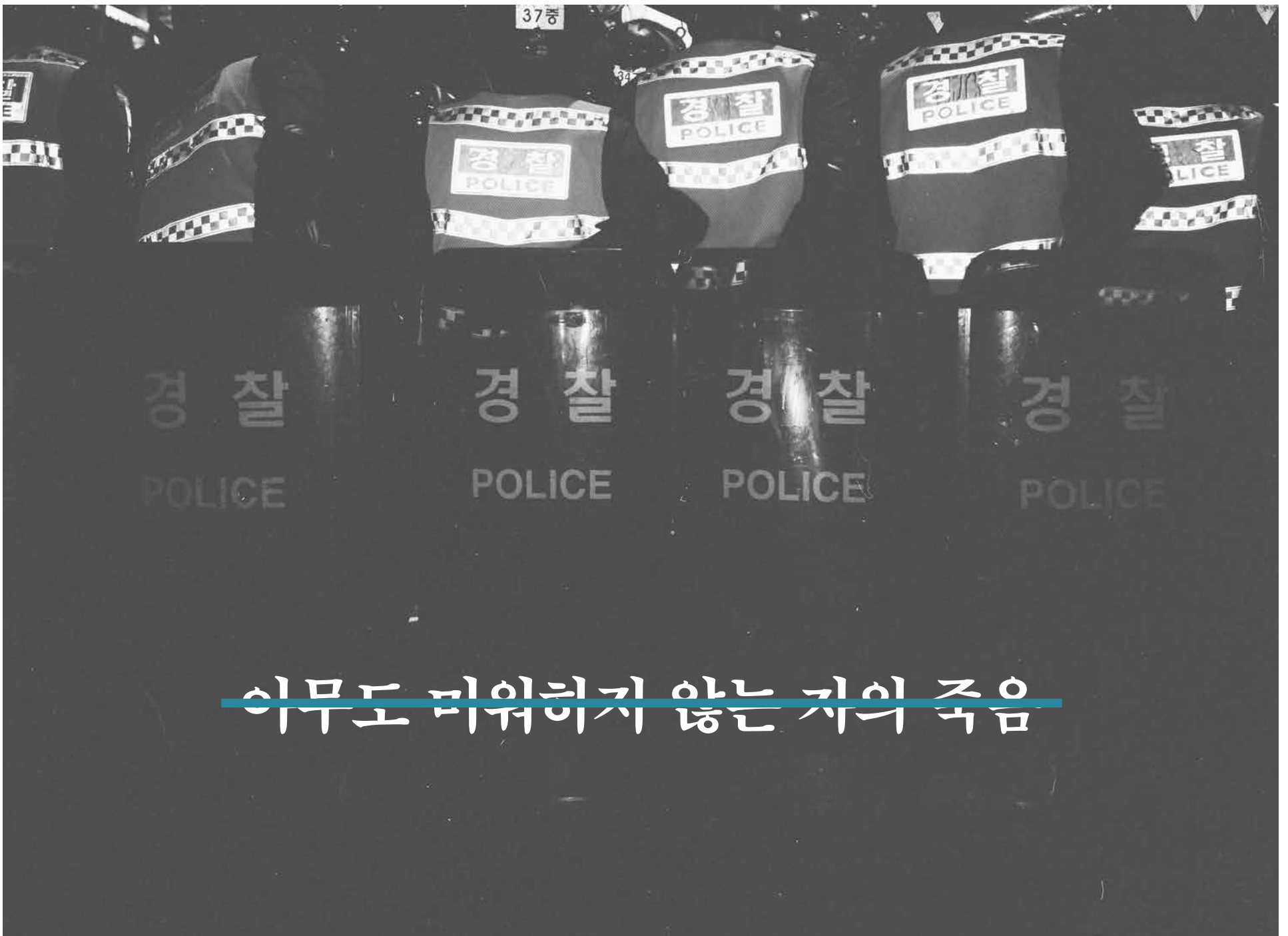
지금은 없다. 분쟁 지역의 NGO 영상팀에 들어가서 후원 요청 영상과 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싶는데 쉽지 않다. (웃음) 이후의 작업은 '지금이야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순간이 되면 찍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배급사를 만나 온 좋게 개봉하게 됐는데, 채택하는 영화들의 흥행 성적이 좋지 않으면 명분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독립영화를 배급하는 영화사들이 사라져버리면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버리는 건 아닌가 싶다. 상반기에 봤던 영화 중에 <100엔의 사랑>이라는 일본 영화가 정말 좋았는데, 관객이 5천명을 못 넘겼더라. 안타깝다.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면 재미있는 영화들이 들어올 기회가 많이 차단되고 사라지지 않을까. 극장에 많이 와 달라. 가족과 함께 보면 더 좋은 다큐멘터리다.

안신호 기자

mat3chon@gmail.com



△ 사이먼 손 사진

이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1941년 독일, 나치 치하의 독일에 살던 두 남매는 뮌헨의 아우구스트 폰 갈렌 주교가 나치의 안락사 정책을 비판하는 강론을 듣고 충격을 받아 갈렌 주교의 허락을 받아 주교의 강론 전문을 전단으로 만들어 뮌헨 대학에 뿌렸다. 그 당시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던 한스 솔과 소피 솔 남매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그들은 불과 2년 뒤인 1943년에 국가에 의해 살해 당했다. 그들이 사망한 이후 나치가 패망하자 한스 솔과 소피 솔의 누이였던 잉에 솔은 한 권의 책을 썼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원제:Die Wei ß e Rose)>라고 이름 붙여진 이 책은 국가의 황포에 마지막 양심을 지켰던 이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사람들에게 읽혔고, 1970년대에서 80년 사이에 군사 독재로 신음 하던 대한민국에서도 공공연하게 읽히곤 하였다. 백남기 농민은 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의 항거 하던 인물 중 하나였다.

1947년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태어난 그는 1968년 중앙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했으나 그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박정희 정부 유신정권 시기에 대학에서 2회 제적을 당했다. 1980년 서울의 봄 때 복교하여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아 1980년 5월 초까지 계속 민주화 운동을 벌였지만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계엄군에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 그는 대학에서 퇴학 당하고,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81년 가석방되었다.

결국 그는 1981년 고향인 보성군으로 귀향하였고, 86년 가톨릭농민회에 참여한 후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를 창립에 가담하면서 밀을 재배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 농민으로 살아왔다. 작년 1차 민중 총궐기 직전까지.

그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2015년 11월 14일, 박근혜 정부의 쌀값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투쟁 대회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경찰 버스를 줄로 잡아당겨 쓰러뜨리려 들다가 오후 8시

10분,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이후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4시간 가량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를 했다고 성명을 냈으나 당시 백남기 농민이 비무장 상태였다는 사실 때문에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2016년 9월 25일 오후 1시58분,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혈압이 떨어지며 위독한 증세를 보이며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317일 만에 향년 68세로 숨졌다. 사망진단서상의 사망 원인은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한 급성 신부전으로 발표되었다.

당일 오후 6시 20분,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검시 하기 위해 검시관이 시민들의 엄호 속에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안치실로 들어가 야당 의원과 유족 대책위원들이 참관하는 와중에 검시가 진행되었다. 백남기 농민의 채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는 그보다 이른 오후 6시, 백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검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이번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유감이라고 생각하지만, 해당 집회에서 진압하다 다친 수백 명의 경찰을 대표하는 경찰청장으로서는 사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9월 26일 아침 검찰과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됐지만,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은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경찰은 병원 주변에 배치했던 3600여 명의 병력을 450명만 남기고 철수시켰으며, 검찰과 협의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오후 11시 부검 영장을 재신청 하였다.

이에 부검과 경찰의 사과를 촉구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울대 병원 앞으로 모였다. 금요일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 김소영 씨는 "집회를 많이 다녔었는데 좀 놀랐다."며 "물, 라면, 떡 등 먹

을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 라면만 2만 개라고, 그만큼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 다음날 10월 1일 토요일 시위에 참가한 20대 사진작가 사이먼 손은 집회에 참여한 이유를 '죄책감'이라 표현하며 "1차 총궐기 때 물대포를 막으시다가 떨어지신 분이 계셨다. 그분이 고 백남기 선생님인지는 확실치 않은데, 구급차에 실려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달 간 잠을 잘 못 잤다."고 하며 "떨어지는 분을 보면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카메라부터 잡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죄책감이 들어 참여를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1차 총궐기 때는 아예 통행을 막아서 시민들이 집회 자체를 보지 못했지만, 이번엔 시민들이 집회를 직접 목격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직접적인 마찰은 없었고 비교적 온건했지만 시위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농성을 하던 청년유니온은 조합원 망지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신 후에 같이 민중 총궐기 현장에 있던 내가 '그'였을 수 있다는 생각과, 당시 제가 캡사이신 물대포랑 눈에 캡사이신 살포 당한 것들이나 엄청 힘들었고 아팠었다"고 회상했다. "이후에 보수언론과 여당정부는 사람을 죽이는 공권력도 폭력 불법 집회로 몰아가고 빨갱이는 맞아도 돼 라는 식의 폭력적인 언사와 행태가 분노스러웠다" 설명하며 집회 참여 이유를 말했다.

또한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도 원망스러웠으며, 사람 위에 법 있고, 그 법마저 자신들의 잣대로 해석하는 행태에 화가 났다. 이번엔 위독 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필요 없는 부검을 하려 시도하는 현장에 가서 있으면서, 사람도 죽이고 사과 한마디 헛으로도 못하는 정부인데 뭘 못하겠냐는 생각이 들어 진실을 잘 지키고 기억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술회했다. 그는 "이번 집회에서 저는 민주노총에서 만든 영

상에 나오는 손자와 장난치시는 할아버지 모습의 백남기 농민을 보면서 너무 우리 할아버지 같아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살인이 아니라, 저 행복했던 가족에 대한 살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많이 울고 아팠고 정부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커졌다"고 일갈했다.

1943년의 솔 남매의 죽음과 2016년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어두운 사회에서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결국 그 벼랑에서 떨어졌다. "백장미단"이라고 불리던 솔 남매가 나치의 진실을 밝힌 호위를 뿌리다 긴급 체포 된 이후 그들이 사형을 언도 받기 까지 불과 며칠도 걸리지 않았으며, 그들이 받은 재판은 단 한 번 뿐이었고, 그나마도 선고를 받자마자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단두대에서 생을 마쳤다.

백남기 농민은 젊은 날 독재와 싸우다 낙향하고, 낙향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쌀값 인상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항의한 것 뿐이었다. 그러나 비무장으로 항의했던 초로의 농민에게 내려진 정부의 대답은 물대포 다발이었고 그 날 쓰러진 농민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사망한 국민에게 정부는 부검을 요청하고, 반려 되자 다시 요청했다.

반세기를 넘어서 돌아, 다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 또 다시 일어났다.

권리임 기자
kwonlime@karts.ac.kr

비평의 계절

비평의 기원은 예술의 역사만큼이나 아득하기도, 근대와 같이 생각보다 가까운 것이기도 하다. 르네상스 이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수사학』을 전거로 삼아 예술에 대한 평가는 이미 존재해왔고, 17세기에는 작품에 대한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작가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의 비평이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18세기가 되면 팔레 르와이얄에서 개최되던 살롱전이 루브르 회관에서 성대하게 치러지면서 회화에 대해 상찬하거나 결함을 지적하는 글들이 대중매체와 팸플릿을 통해 쏟아진다. 이 중 디드로는 글을 통해 하나의 회화를 온전히 구현해 내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매체를 통한 기고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비평가’로 평가된다. ‘회화는 시와 같다’고 말한 그는 비평을 미술과 문학의 형식적 유비관계 속에서 파악했으며 경험과 인상, 비평적 관조를 통해 작품을 분석하고자 했다. 디드로는 전시회에 여러 번은 방문하여 ‘일곱 시 반부터 오후 세 시까지 수첩에 설명을 채워 넣고 저녁에는 촛불 아래서 자신이 했던 스케치들을 정서’했다. 인상 비평의 시작을 알리는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이후 보들레르, 졸라, 프루스트에 의해 계승되면서 근대 비평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한편 2년마다 열리는 성대한 축제, 살롱전은 계급과 지위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동시에 비평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만들어냈다. 수집가들은 자신의 화랑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예술가는 작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비평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근대 이후 새롭게 출현한 대중은 수많은 작품 앞에서 고급 취향을 선별해 낼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비평에게서 찾고자 했다. 이는 이전까지 궁정 귀족이나 영주가 계급을 통해 독점하고 있던 취향과 예술에 대한 미적 평가를 이제 비평가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탁월한 감식가들은 대중에게 예술을 알리고 그들의 확대된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자가 되었으며, 이후

미술이 후기인상주의와 상징주의를 거쳐 아방가르드라는 새로운 가치를 내걸고 선봉으로 나아갈 때, 후위에서 함께 전선을 구축하였다. 19세기를 넘어 20세기 초까지 헤겔의 유산 아래 역사비평은 작품에 시대의 정신을 전사시킴으로써 전위의 운동성을 추동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조에 강력한 이론적 지지를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 “시대를 벗어난 창작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변증법적 사유로 나아간 비평은 루카치Georg Lukacs의 표현처럼 ‘별이 빛나는 창공’을 따라 거대한 서사시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

비평의 가장 찬란한 시기는 역사비평이 바로 그 역사 속으로 스스로 침몰하는 동안, 형식주의 미학이 태동시킨 신비평이 그 자리를 대신해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새로운 비평 방식은 작품 자체에 집중하는 내재적 방법론으로 ‘의미 있는 형식’과 여기서 파생되는 ‘미적 정서’를 비평가가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조형성을 통한 예술적 황홀경을 체험하는 감각과 “신의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예술가의 언어를 번역”하는 권능을 가진 비평가 모델은 20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의 모더니즘 담론을 선도한 클레멘트 그린버그까지 이어졌다. 이제 비평은 그 자체로 강력한 엘리트주의 성향을 띠면서 예술을 매개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모더니즘의 적자를 자처하였고 아카데미, 저널, 파라텍스트를 포함한 배타적 정보접근권을 통해 비평-권력을 상당기간 독점할 수 있었다. 비평-권력은 일련 모호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는 기제로, 특정한 방식으로 예술계에 헤게모니를 관철시킨다. 주로 “이름붙이기labelling”의 차원에서 구현되는 이 방식은 특정 작품이나 작가를 호명하여 비평적 담론을 형성하는 동시에, 침묵을 카르텔을 통해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해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것이 예술담론을 생산하는 최종 심급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 인터뷰에서 그린버그는 “최상의 취미는 일정한 한

계 안에서 항상 만장일치의 판단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르텔 안에서 비평은 만장일치의 판단처럼 항상 옳다.

다음으로 20세기 후반 비평적 경향을 살펴보면 후기구조주의를 이론적 틀로 받아들이는 한편, 다양한 사회과학 담론들을 접목하는 학제 간 연구로 나아갔으며, 아서 단토와 『옥토버』 필진들이 철학적 비평가로서 약진하였다. 그들이 다루는 비평이론은 기호학, 정신분석학 외에도 사회과학 영역과 문화이론을 넘나들었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대안적 ‘틈’을 만들고자 하였다. 특히, 로잘린드 크라우스나 벤자민 부홀러 같은 비평가들은 모더니즘 이론에 강력한 안티테제를 구축하면서 그린버그와 절연하는 동시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에 근거한 새로운 비평모델을 만들어냈다. 문화산업과 스펙타클, 후기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론의 논거들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을 분석하고,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저항거점을 마련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데리다, 푸코, 라캉 등을 언급하는 모든 비평가는 ‘옥토버’에 빚진 것”이라는 미술사학자 데이비드 커리어의 지적처럼 이들이 유럽의 비평이론을 통해 1960년대 이후의 미술을 설명하는데 주요한 공헌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비평이론들이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면서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그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자본주의-컨베이어 벨트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한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세계화의 결과로 생겨난 거대한 제도/기관들은 스스로 작품을 생산, 유통하는 것은 물론, 비평적 헤게모니까지 축적하고 있다. 창작과 전시 큐레이팅에 경우 기업 스폰서에 의존도는 점점 커지는 반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비평적 논의는 점점 줄어들어 양상이다. 80년대까지 자본과 치열한 전선을 구축하던 비평적 담론들은 모두 후퇴하거나 텍스트 안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징후들을 읽어낼 수 있지만 근원은 결국 깊은 회의주의로 수렴된다. 더 이상 비평가들이 거수한 만장일치의 판단에 어떠한 신뢰도 보낼 수 없다는 종류의 회의주의는 정치적인 것에 대해 혹은 개별 작품에 초차 발터 벤야민이 “비평은 올바른 거리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문화적 ‘거리’를 비평가들이 더 이상 상정해 낼 수 없을 거라는 불신과 관련된다. 어떻게 비평가는 스스로의 다양한 아비투스 안에서 문화적으로 분리되어 ‘올바른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의심이 윤리를 잠식한 이후, 비평적 판단의 전제가 되는 윤리성과 추상적인 형태로 말할 수 있는 모종의 정치적 권위는 비평의 위기 아래 모두 거부된 상태다. 바야흐로 “비평의 사라짐”은 우리를 자유로운 배치 속에서 유목민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원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상대주의에 가까워 보인다. 실로, 비평은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계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미술원 재학, 사계절을 좋아한다

대중과 전통 음악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작년 6월 초부터 세 달간 빅뱅의 멤버 G-Dragon(권지용)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 사실을 보도하며 ‘10대 관객을 이끄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적어놓았다. GD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개최되는 이유는 많겠으나, 가장 큰 이유로는 대중들의 시선을 순수미술 쪽으로 더 빠르고 확실하게 끌어들이고 싶기 때문이다.

패션과 디자인을 중심으로 전시하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나 대림미술관과 다르게 국립 미술관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GD를 정식으로 초청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시립미술관 뿐만 아니라 2013년 팝스타 데이비드 보위의 회고록을 진행했던 런던 V&A(빅토리아앤드알버트 박물관), 비오코에 대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던 뉴욕현대미술관(MoMA)을 볼 때, 순수미술이 엘리트 주의를 내려놓고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시류라고 볼 수 있다. 소위 순수미술(Fine art)에 대한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대중의 시선에서 외면당하고 ‘돈이 안 되는’ 사립대학교의 예술 단과대는 통합되거나 폐지되고 있으며 예술학도에 대한 수요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국악으로 위시되는 전통예술 또한 대중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

이 확실하게 보인 적은 거의 없다. 아직도 국악은 대중에게서 먼 예술 장르이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서양의 음악 장르인 팝(POP)이나 락(Rock)보다 낯설게 느끼고 있다.

젊은 층에게 국악이 어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들던 익숙한 음악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까이 찾아보면 국악이 초, 중, 고 음악 시간에 제대로 편입된 것은 제 7차 교육과정부터고 이마저도 2007년 교육 개정안을 통해 만들어진 실험본 교과서에서 현행 37.5%였던 국악의 비율이 9.1%로 대폭 삭감이 되어 관련 전공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어렸을 적부터 국악과 멀어진 젊은 세대들은 이후로도 자연스럽게 국악과의 접점이 줄어들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본래의 국악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국악은 엘리트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국악예고나 전통고를 졸업하지 않은 이상 국악을 제대로 알 수 없게 교육 환경이 짜여있다. 국악 전공자들 사이에서 대중에게 가까워져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최고의 밴드 등 인디밴드와의 협업도 하고 있지만 그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미술계의 시류처럼 대중성만 좇아 아

이들 문화와 쉽게 결합하기에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실제로 걸그룹 티아라의 유닛이었던 티아라N4가 2013년 발표한 〈전원일기〉라는 곡은, 휘모리장단을 접목시키고 국악인 황호준과 협업을 하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역효과를 낸 전력이 있다. 티아라는 무조건적인 크로스오버는 도리어 독이 된다는 전례를 남겼다.

근대 이전의 예술은 꾸준히 후원자라는 독점 시장이 있었으나 현대의 예술은 한 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에 던져졌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인의 일’을 가지고 있다는 국악과 전통예술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현대인이 듣지 않는 국악은 박제되어 있을 뿐이다. 끊임없이 대중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교육이 수행되지 않는 젊은 층을 청취자로 끌어들이는 방법,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아정 전통예술원 학생입니다



△ G-Dragon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피스마이너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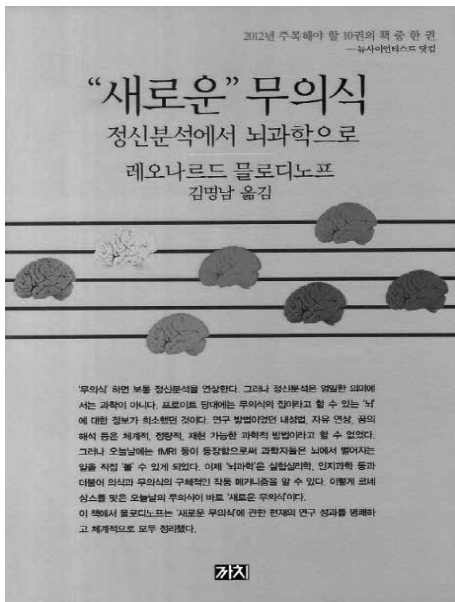
△ 티아라N4 전원일기

프로이트에서 fMRI까지, 보이지 않는 것의 행방에 대하여

이 주의
도서관
자료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과학적 분석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설명한 뇌과학 이야기



△ 레오나르드 블로디노프, 「새로운 무의식: 정신분석에서 뇌과학으로」, 한국어판 표지

「새로운 무의식: 정신분석에서 뇌과학으로
(SUBLIMINAL: How your unconscious mind
rules your behavior)」

저자: 레오나르드 블로디노프(Leonard Mlodinow)

역자: 김명남

출판사: 까치글방

페이지: 333

청구기호: 181.38 물235스

먼 옛날, 인간이 아직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웅장한 대리석 기둥 사이로 고개 내민 신들과 함께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영혼은 아직 몸과는 구분되어 있었다. 플라톤이 「국가」에서 시가 교육(mousike)와 체육 교육(gymnastike)을 구분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에게 영혼과 육체는 서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명백하게 구분되어 존재하는 상태였고 따라서 각자 길러져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간의 영혼에 대한 해석은 데카르트를 거쳐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 다소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인류는 대개 영혼이 육체의 상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종교에서는 무한한 영혼과 유한한 육체 사이의 위계를 정하기도 했다. 육체는 욕구적인 것이었고, 영혼은 이성적이거나, 신성한, 숭고한 것이었다.

이러한 위계질서는 대개 절대주의라는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다. 절대적인 '원본' 혹은 '진짜'에 대한 환상은 인간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기대게 만들었다. 목적이야 제각각이었지만 어쨌든 정해진 정답이 있고, 이를 좇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던 때다. 이때의 연구는 이념적으로는 상당히 사회적이고, 또 철학적이었는지언정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극히 비과학적이었다. 따라서 인류가 그간 알아온 인간의 영혼에 대한 탐구는 대개 애매하고 간접적인 지식만을 창출하게 된다. 절대주의가 절대적인 진리를 담보한 이상,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실책이다.

물론 과학이라고 해서 언제나 진실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학은 상대주의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진실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보고도 '확실히 이러하다'가 아니라 대개 '이러한 환경에서 특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결과 이러하다'가 된다. 즉 과학은 어디까지나 탐구 방식의 하나일 뿐이며, 인류가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학문적 도구 중의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논리성과 신중함에서 과학이 그간 인류가 사용해 온 그 어떤 도구보다도 더 정교하게 현상을 분석해낸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 과학은 '반증 불가능성'에 대해 반대한다. 반증될 수 없는 것은 신앙으로서 '믿어야 할 것이지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학문이 단순한 신앙의 일부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 과학적 방법론은 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인문학이 흔히 피하지 못하는 비판 중 하나가 '엄밀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당장 그 분야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야 흘려들어도 좋을 것 같지만, 학문의 발전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지적이 정말 쓸모없는 것인가? 예술대학 신문이라는 지면에서 굳이 뇌과학 도서를 골라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우리는 스스로 조금 더 엄밀해져야 한다. 굳이 과학의 방법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신념에 대한 비판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예술학교에 와서 작업실에서 밤을 새가며 작품을 만들면서 기술적인 훈련에 치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작품이 결국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지점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과학의 영역까지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술대학에 다니며 싫으나 좋으나 한 번쯤 듣게 되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 맥락과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블로디노프의 설명을 통해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해나간다.

이 책에서 아주 어렵거나 대단히 전문적인 내용, 복잡한 수식은 대부분 생략되었다. 레오나르드 블로디노프라는 이론물리학자가 진행한 연구의 내용들을 감안한다면 이 책이 이만큼이나 대중친화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책에서는 특히 우리가 스스로 지각하지 못하는 뇌의 판단들에 대해 강조하는데, 이것이 이 책이 말하는 오늘날의 '무의식', 즉 '새로운 무의식'이 된다.

이 '새로운 무의식'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은 주로 fMRI로 찍은 뇌 사진을 통해 밝혀진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선택했다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뇌의 활동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음을 알게 된

다.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중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과학적 의미에서 진정한 '무의식'인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은 과거 프로이트 등의 환상적인 해설에서 벗어나 좀더 엄밀한 구조를 지닌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고 사람의 판단기준에 외모적 요소를 집어넣으며 대상을 범주화하여 해석한다. 각각의 사례들은 자세한 실험 결과와 관련 논문을 통해 뒷받침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포착 가능한, 실존하는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부유하는 순수한 영혼이나, 온갖가지 현란한 욕망들을 토해내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더 효율적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감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는 별개로, 무의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실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우리는 스스로가 속한 세계를 올바르게 지각한 후에야 비로소 이 세계 속에 실존하는 나와 나의 예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예술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그것의 정체성을 정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위이기 마련이다. 이 책은 당신이 이전까지 포착하지 못했던 당신 주변 세계의 모습을 좀더 명료하게 그려내 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뇌를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이미지와 뇌를 거쳐서 나온 이미지를 비교해볼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그때에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라겠다. "우리는 결국 어디에 서 있는가?"

서동완 기자

official0504@gmail.com

신입기자 상시 모집

2016년 2학기부터 신문사에서 활동할 신입기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양식에 관한 첨부파일은 누리 홈페이지 신문사 게시판에 있는 모집공고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선발부문

- 취재기자(0명), 사진기자(1명)
- 사진기자는 개인 카메라 보유 및 어도비 포토샵 툴 사용 가능자에 한함

근무조건

매주 금요일 19시 정기 편집회의 및 편집 참여

지원방법

- 400자 이하의 자기소개서(지원자 공통)
- 취재기자 지원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최소 500자 이상의 논설 형식 글
- 사진기자 지원자: 직접 찍은 사진.JPG 파일 5장 이상

* 자기소개서 및 논설 양식 첨부파일 참조

스(아래아한글 혹은 워드 중 택1)

* 지원 분야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newskarts@gmail.com 으로 발송

급여

- 매월 기자 활동비 지급
- 학기별 학교발전기여장학금 지급(정기자 이상)

지원기간 및 면접일시

서류 접수 후 개별 통보

문의

newskarts@gmail.com

한국예술 종합학교 신문

발행인
주간교수

김봉렬
우광혁

부편집국장

서안

문화부장

안신호

편집부장

김민지

대학취재부장

서동완

사회부장

권라임

편집부

박주미

대학부

박굴

편집부

최희수

대학부

정한별

편집부

김규빈